

# 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 -

전 종 한\*\*

## Original Form of Castle Town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Eupchi (county seat) Landscape in Naepo Area, Korea\*

Jong-Han Jeon\*\*

**요약** : 이 글은 내포지역의 읍성 연구를 사례로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에 접근한 것이다. 한반도의 서·남해안 일대는 방어상의 이유와 넓은 하안 충적평야, 해안 저지대의 농경경제 가치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읍성 축조가 이루어졌다. 내포지역은 그러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내포지역의 읍치경관 원형은 방위와 길흉의 연관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나 권력의 자연화 전략을 반영하며 일정한 원칙 하에 조형되면서도 국지적 단위의 시·공간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시대동안 초기 읍성이 지닌 공간성은 군사적 공간으로부터 점차 정치·행정적 중심지로 변화하여 갔다. 일제강점기가 되면, 전통시기의 읍치가 통치·행정 치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자본 축적의 중심, 경제와 교육의 거점, 촌락 공간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내포지역에는 개항지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읍성안 토지 장악은 주요 개항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었다. 더욱이 읍성 공간을 친한 공간으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은 조선인들의 신속한 읍성 이탈을 부추긴 반면, 읍성 공간이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성과 서비스 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풍부한 자본력은 일본인들의 광범위한 토지 점유를 가속화한 흡입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1920년대부터 구읍성 일대는 통치 기능 외에 금융, 상업, 교육, 교통 기능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도시 문제의 발원지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의 경관 변형은 기존 거주민(조선인)에 의해서가 아닌 대체 거주민(일본인)을 통해 주도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형태와 기능상의 변혁이었음은 물론이고 매우 급격한 사회공간적 재편이었다.

**주요어** : 읍성, 읍치경관, 시간성, 공간성, 근대적 도시경관, 도시적 생활양식, 사회적 공간.

**Abstract** : In principal, the original form of Eupchi landscape in Naepo reflects a traditional idea regarding direction as a connection with one's fortune and naturalization strategy of power. In reality, the weight for the landscape inside the castle town was distinct by localit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natural geographies and main function of the castle town.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Eupchi landscape was shaped under the fixed principles but it was simultaneously reflecting the local temporality and spatiality. As Chosun Dynasty went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Eupchi in the traditional period started to evolve into a modern city. That is to say, the traditional Eupchi as a political place became to change into the center of capital accumulation, stronghold of economy and education, and center of town beyond the function as a place for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process of change from the landscape of Eupchi to a modern city was a kind of revolution in the form and function, and it was also a very rapid rearrangement of social space. The disparate element of landscape and double social space worked as a vital inertial element in the urban structure of Naepo area until the post independence and evolution of landscape

**Key Words** : castle town(Eupseong), Eupchi(county seat) landscape, temporality, spatiality, landscape of modern city, urban life style, social space.

\* 본 연구는 2004년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2-072-AM1008).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ilotopoer@yahoo.co.kr

## 1. 머리말

도시경관(townscape)은 그것의 탄생과 존속 여부에 관여하는 시·공간적 맥락성을 반영한다. 도시경관은 당대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접근하는 단서로서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는 문화 경관의 하나이다. 한국의 현재적 도시경관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읍성 취락과 읍치경관으로부터 진화해 온 것이다. 조선왕조는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당성을 읍성 축조와 읍치경관 구성을 통해 각인하였고 읍성 취락을 '권위의 공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반면, 당대 촌락의 사족들에게 읍성은 향리 집단이나 하급 관원들이 거주하는 '하층민의 공간', '멀시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sup>1)</sup>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일제는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읍성 취락들을 도시 계획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한편(澁谷鑛明, 1998), 전통 경관의 훼손과 경관 구성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사물의 질서를 확산시켜 나갔다. 광복 이후가 되면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맥락성이 경관 변화의 배경에 첨가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근대적 도시경관은 조선왕조와 일제 시기의 경관 누층 위에 또 하나의 경관 층위를 갖게 된다.

조선초기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는 방어상의 이유와 넓은 하안 충적 평야 및 해안 저지대의 농경제적 가치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읍성 축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내포지역은 그러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적어도 내포지역의 도시경관 원형을 조선 시기의 읍성 취락에서 찾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 관한 도시형태학적 접근에 있어서 읍성이라는 소재가 차지해야 할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앙 집권적인 공간 장악을 추구했던 조선시대의 지방 통치 이념은 국지적 중심지로서의 초기 읍성, 특히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읍치경관들에 반영되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내포지역의 읍치경관을 검토하는 일은 조선시대 중앙 권력의 주체가 읍성을 통해 지방의 사회 공간을 포섭해나가는 일면과, 한국에서 건설된 초기 읍성의 경관 구성 원형 및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나아가, 구한말 이후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도시경관의 근대화과정에 접근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조선시대

및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도시경관의 소멸과 등장 과정을 읍성 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은 내포지역의 지역 정체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인문지리학적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내포지역의 읍치경관과 구성상의 특성, 그리고 그것의 근대적 변형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포지역의 도시경관 원형을 조선 시기 읍성 취락에서 찾고, 이 지역에 건설된 초기 읍성 취락의 주요 경관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내포지역의 9개 읍성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초기 읍성들에서 관찰되는 경관 요소, 경관 규모, 경관 배치의 원리 및 경관 구성, 경관 요소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성과 정치·사회적 맥락성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러한 항목들이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읍치경관 형태 및 기능의 지속, 단절, 대체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고에서 추구하는 다른 한 가지 주제는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 이후의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내포지역의 도시경관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하는 것이다. 특히, 내포지역과 같이 대표적 개항지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주요 일본인 거주지로 알려진 지방도 아닌 지역에 있어서 도시경관의 近代的 照應은 어떠한이었을까? 이러한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 시선에서 벗어난 타자의 공간에 접근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사실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타자의 공간들이 보다 보편적이고 민중의 일상적인 공간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산 읍성을 사례로 삼아 이 주제의 실상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내포지역의 홍주읍성이나 해미읍성, 혹은 면천읍성 등과 달리 서산읍성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바 없었다.<sup>2)</sup> 조선후기 서산읍성에는 객사와 동헌에서부터 누정과 연못에 이르기까지 읍치경관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성곽의 규모에 있어서도 홍주읍성에 다음 가는 대규모 읍성이었다. 오늘날, 한반도의 다른 많은 읍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산읍성의 경관 요소들은 거의 소멸되어 버렸다. 많은 경관 요소들이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대 이상의 상당수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존속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 탐구하려는 세부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동안 서산읍성 일대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얼마나 유입되었을까?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거주와 확산은 어떤 지구를 매입하며, 얼마나 신속히, 어떠한 주기성을 띠며 진행되었을까? 그들의 거주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주요 직업은 무엇이였을까? 이들의 유입과 함께 읍성 내외에 새롭게 입지한 기능체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 지역에서 전통적 경관 요소의 소멸과 지속에 관여한 주체가 과연 누구였을까? 이와 같은 새로운 유입민의 등장과 도시경관의 변화가 지리적으로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동안 창출된 토지이용 패턴과 근대적 도시경관은 한국의 도시 진화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도달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조선시대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정을 구명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관점과 접근 방법

도시형태학은 도시경관의 물리적 형태에 관심을 두고 구성 요소, 구성 원리, 집합 패턴, 공간 조직, 토지이용, 그리고 이들의 진화과정을 연구한다. 도시형태학은 19세기말 독일의 문화지리학자 슈뤼터(O. Schlüter)를 학문적 기원으로 삼는데, 오늘날 영국에서는 역사지리학, 이탈리아의 건축학, 미국의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도시지리학의 한 영역이지만 연구 방법의 면에서는 역사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국내 학계에서는 1991년 '도시형태학'이라는 용어가 논문 제목으로 처음 등장하였다(류제현, 1991). 그러나 내용상 관련된 연구들은 이보다 훨씬 일찍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도시계획학, 인문지리학, 조경학, 건축학, 도시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간 국내 도시형태학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도시 형태의 한국적 原形과 그것의 식민지적 變形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원형 형성의 요인으로서 풍수지리설, 周禮 考工記, 유교적 원리 등에 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손정목, 1973; 예명해, 1998; 임덕순, 1998; 김덕현, 2001), 전통적 경관 요

소의 훼손으로부터 시작한 식민지적 변형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손정목, 1990; 류제현, 1991; 전근완, 1996; 고석규, 2001; 윤홍기, 2001; 이원호 외, 2002; 김기혁·김성희, 2002; 최상식 외, 2003; 山元貴繼, 2001; 2003). 대부분의 이들 연구는 한국 도시 형태의 원형이 읍성 취락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형태학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읍성 및 이를 구성했던 경관 요소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점 때문이다. 조선시대 읍치경관 요소의 배열 상태, 구성 원리를 논구한 연구들도 있고, 시기상 일제강점기에 치중하여 외국인 유입, 식민지 시기 읍성의 훼손 과정이나 경관 요소의 대체 등 형태상의 변천을 추적한 경우도 있다(최영준, 1974; 이해은, 1984; 윤정숙, 1985; 김경수, 2000; 박찬승, 2002).

이 글은 선행 도시형태학 연구의 연장선에 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계통적 성격의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 연구라는 입장에서 내포지역의 읍성 취락을 이해하려고 한다. 내포지역을 단일 지역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간 자연지리적 특성, 역사적 이력, 사회·경제적 특징, 종교·사상적 측면 등에서 일련의 긍정적 입장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내포지역연구단, 2003; 전종환, 2003). 적어도 내포지역을 공간 단위로 한 읍성 취락 연구가 의미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내포지역을 단일 지역 단위로서 간주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 연구는 읍성 취락의 원형과 근대적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내포지역의 내적 동질성과 외적 보편성을 검토하는 추가적 성격의 실험이다.

내포지역의 읍성이 갖는 동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 내포지역의 읍성 분포, 입지 특성, 경관 요소, 공간 배치를 분석하게 된다. 이 항목들을 기존의 타지역 읍성 연구 성과 및 제도적 수준의 읍성 구성 원리와 비교함으로써 내포지역의 읍성들이 갖는 특징들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등 특정한 시간 단면에 관심을 두었던 기존의 대다수 연구와 달리, 필자는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에 이르는 중·장기적 경관 진화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내포지역에서 전개된 한국 근대화와 도시경관의 근대적 변형의 관계를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경관<sup>3)</sup>에 대한 연구 주제는 물리적 형태 분석, 기능지대 구분, 그리고 지명 해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물리적 형태란 건축물의 위치, 규모, 양식, 밀도, 도로망 형태 등을 말하며, 기능지대란 거주지 분화, 토지이용(지목 변화, 소유 관계) 패턴을 의미한다. 도시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다시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당대의 지배적 사상이나 관념을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투시하는 문화기호학적 이해의 시각, 정치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다는 시각의 문화정치학적 해석, 거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분석이 그것이다. 세 가지 관점은 적용의 면에서 반드시 배타적인 성격은 아니며, 설명력의 상대적 비중은 서로 다르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시각은 시간 흐름에 따른 경관 변화의 연속과 단절성에 주목하려 함이다. 즉,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에 이르는 동안의 도시경관의 등장과 소멸, 형태 및 기능 변화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한 진화의 산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조선시대의 전통적 도시경관 이해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전통 경관의 식민지

적 왜곡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기로의 경관 진화에 관한 것과 이중적 도시 공간구조의 형성으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진행된 경관 변형에 주목한다.

### 3. 내포지역의 읍성 원형과 경관 구성

#### 1) 읍성 축성의 과정과 경관 요소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시기 내포지역에는 홍주, 결성, 덕산, 대흥, 서산, 해미, 태안, 당진, 면천 등 9개의 읍성이 있었다. 이 중 홍주읍성과 덕산읍성을 제외하면 축성 시기가 대체로 조선초기, 특히 15세기 전반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石築이었다. 읍성 규모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내포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존속해왔던 홍주읍성이 가장 컸고, 시기에 따른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서산읍성, 결성읍성, 면천읍성이 다음을 잇고 있다(표 1).<sup>4)</sup>

조선초기의 이들 읍성은 여말선초를 과도기로 하여 인근의 古邑城이나 山城으로부터 이전 시기의 중심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낮은 평지로 입지를 옮겨온 것이 많다. 즉, 조선시대의 읍성 취

표 1. 내포지역의 읍성 축성 시기와 규모

구 분	축성 시기	규 모 (읍성 둘레)			
		세종실록지리지 (1432)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여지도서 (1757)	대동지지 (1866)
1. 홍주읍성	고려시기	533步2尺	4,915尺	5,850尺	5,850尺
2. 덕산읍성	14세기(고려말엽)	398步	2,655尺	·	2,655尺
3. 해미읍성	15세기초(태종조)	·	3,172尺	6,630尺	2,630尺
4. 태안읍성	1415 (태종16)년	426步	1,561尺	1,561尺	1,561尺
5. 면천읍성	1438 (세종21)년	·	3,002尺	2,526尺	3,002尺
6. 당진읍성	1439 (세종22)년	289步	1,954尺	·	1,954尺
7. 결성읍성	1450 (문종 1)년	453步	3,325尺	3,325尺	3,325尺
8. 서산읍성	1474 (성종 6)년	·	3,710尺	2,727尺	2,717尺
9. 대흥읍성	축성 년대 미상	244步	1,115尺	·	1,115尺

註: 내포지역의 읍성 축성 시기는 고려말과 조선초기, 특히 15세기 전반기에 집중되고 있다. 1429년(세종 11년)에 공포된 읍성 축성 시행령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읍성의 상당수는 인근의 고지대에 古邑基를 갖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16세기 시점에서 읍성의 규모는 홍주읍성, 서산읍성, 결성읍성, 해미읍성, 면천읍성 등의 순위를 보인다.

락은 이전의 고읍성이나 산성이 진화한 형태였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곽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은 당연하다. 조선시대의 고지도를 비롯한 각종 사료 기록을 보면 대부분 읍성들이 인근에 舊基, 즉 옮겨오기 이전의 옛 터나 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그려진 서산읍성 고지도에는 읍성 남문 앞에 '古邑基'라는 표시가 나타나며(그림 2 참조),<sup>5)</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태안의 고읍성이 굴포에 있다<sup>6)</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청도읍지』에는 결성 읍성의 옛 읍이 북쪽 5리에 위치한 紳衿城이라 되어 있고,<sup>7)</sup> 해미읍성의 경우에도 북쪽 30리 거리에 옛 縣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sup>8)</sup>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읍성이 축성되지 않았던 예산의 경우에도 옛 읍 터가 서쪽 6리의 오산성이라는 기록이 보이고,<sup>9)</sup> 『여지도서』에는 인근의 몽산성이 폐지된 뒤 泗州, 즉 면천 읍성이 들어섰다고 쓰고 있다.<sup>10)</sup>

실제로 여말선초의 시기에는 산성과 평지의 읍성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고려말엽 신우왕 때에는 방어상의 이유로 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평지에 성을 쌓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sup>11)</sup>이 있었다. 그러나 창왕 때에는 기름진 밭은 해변에 있는데 沃野 수천리가 倭奴들에게 함몰되어 있다고 하면서 연해 읍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2)</sup> 이런 논쟁이 반복되다가 조선 세종 대에 와서는 결국 국방력의 강화에 힘입어 산성과 평성 중 후자, 즉 평지의 읍성 축조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sup>13)</sup> 이 같은 원칙은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던 연해 지방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포지역에서도 15세기, 특히 태종과 세종 대를 전후하여 읍성 축조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조선 시기에 축조된 읍성의 내부에는 어떠한 경관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었을까? 표 2는 주요 사료들에 언급된 읍성 내부의 주요 경관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여지도서』에는 경관 요소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상의 서술 순서에 의미를 둘 때, 읍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관은 關牌 봉안 및 귀빈 접대를 담당하던 객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객사는 수령의 공간인 동헌과 내아를 합한 것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군현에 따라서 객사는 단독 건물로 지어지기도 하였으나 해미, 태안, 서산, 면천읍성에서와 같이 동헌과 서헌, 중대청, 하마대 등 다양한 익청들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었다. 객사 다음으로 중요한 경관 요소는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과 관사 기능의 내아였다. 덕산이나 당진읍성의 경우는 동헌 및 내아가 객사에 비해 더 다양한 시설을 갖추면서 보다 큰 규모로 존재한 사례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이 외에 누정이나 연못과 같은 휴식 시설,<sup>14)</sup> 절청, 향청과 같은 행정시설, 교련청, 궁기고 같은 군사시설이 주요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내포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던 홍주읍성에는 경사당, 사달정, 사정 등 누정이 세 곳이나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병영이 설치되었던 해미읍성에는 교련청, 장관청과 같은 군사 시설이 세분화되어 있다. 읍성을 통치한 수령의 지위나 읍성의 성격에 따라 읍성 안에서 차지하는 경관 요소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성문 수에 있어서도 읍성이 처한 지형적 조건에 따라 다양했다. 각 시설의 명칭이나 종류도 읍성에 따라 달랐으며 결코 획일적이지 않았다. 특히, 서산읍성과 태안읍성의 경우에는 가장 다양한 시설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읍성 안의 경관을 크게 「客舍」群과 「衙舍」群으로 나누고 읍성 안의 모든 경관 요소들을 두 개의 경관군속에 포함시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 2) 읍성의 구조와 경관구성

고지도는 읍치경관 요소들의 공간적 관련 상태, 즉 경관 구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에 제시한 조선후기 군현도 분석을 바탕으로 표 3에서는 고지도 상에 묘사되어 있는 읍치경관 구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1872년 발행된 군현별 고지도에는 『여지도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설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경관들이 그려져 있어 조선시대 읍성을 구성하던 경관 요소들이 거의 완벽하게 포착된다. 이들을 분석할 경우 읍성 내외 주요 시설들의 공간 배치 특색이나 입지 원리를 추론하는 일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읍성 안팎의 시설 배치에는 「주례」의 左廟右社 원칙, 「주역」의 오행 원리나 「풍수지리설」에 의한 四大門 및 읍성 형태 조성,<sup>15)</sup>

표 2. 내포지역 읍성의 경관 요소

구 분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지 「城郭」條	여지도서 「城池」條	여지도서 「公廩」條
홍주읍성	우물(1개소)	우물(3개소), 성문(동서남북 4개소)	동문루(3칸), 서문루(3칸), 서문(문루無), 연못(경사당 서측), 景士堂	객사(洪陽館 43칸), 동헌(近民堂 7칸), 내아(27칸), 경사당(5칸), 사달정(7칸), 남관(5칸), 射亭(14칸)
덕산읍성	우물(1개소)	남문, 우물(2개소)	.	객사(62칸), 衙舍(81칸), 군기고(7칸), 各廳(16칸)
해미읍성	.	우물(3개소), 軍倉	남문(3칸2층루), 동문(3칸), 서문(3칸), 우물(6개소)	객사(동서헌 36칸), 동헌(9칸), 장관청(7칸), 군관청(8칸), 교린청(8칸), 질청(12칸), 사령청(7칸)
태안읍성	우물(2개소)	남문, 우물(5개소)	남문(3칸2층루), 동문(3칸)	객사(정청 6칸, 동헌 12칸, 서헌 10칸, 청방 8칸, 중대청 8칸, 하마대 5칸), 衙舍(동헌내외 10칸, 아사 15칸, 책방 3칸, 公須 10칸, 향청 10칸, 관청 9칸, 질청 9칸)
면천읍성	.	.	우물(2개소), 연못(3개소), 동문, 서문(문루1층), 남문(문루1층), 해자, 창고(2개소)	객사(82칸), 碧大廳(9칸), 上西軒(9칸), 내동헌(10칸), 외동헌(10칸), 衙舍(50칸), 官廳庫(19칸), 郡司(7칸)
당진읍성	우물(1개소)	우물(2개소)	.	객사(27칸), 衙舍(35칸), 향청(13칸), 질청(13칸), 通引廳(3칸), 사령청(6칸)
결성읍성	우물(있음)	우물(6개소)	동문(문루 1층), 서문(문루無)	객사(결성관 41칸), 내동헌(平近堂 5칸), 외동헌(望日軒 3칸)
서산읍성	.	.	동문(3칸), 서문(3칸), 남문(3칸), 우물(3개소), 창고(3개소, 각각 동문 내측, 관아 북측, 서문 내측에 위치)	객사(安正廳 6칸, 동헌 12칸, 서헌 10칸, 향청8칸, 중대청 8칸, 하마대 5칸), 衙舍(동헌 11칸, 아사 15칸, 책방 3칸, 公須 10칸, 향청 10칸, 관청 30칸, 질청 9칸)
대흥읍성	우물(없음)	.	.	.

註: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지』 등 조선전기 사료들에서는 읍치경관 요소에 관한 기록이 우물이나 성문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의 조사 항목이 그러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 초기 읍성의 주된 기능이 실제로 군사적인 측면에 제한되어 있었기에 군사 관련 시설 위주로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 『여지도서』에 기록된 다양한 경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적 기능의 초기 읍성이 조선중기 이후 점차 정치 행정적 중심지로 변화한 것은 아닌가 사려된다.

읍성 내 최고 권위 경관으로서 관아 입지의 中心性 등이 주요 원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입지 원리에는 「중심부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관념」과 「경관의 위계적 배치 통한 권력의 자연화<sup>16)</sup>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최기엽, 1982, 213-217; 윤희기, 2001). 가령, 성황단과 여단은 대개 읍성 밖의 진산이나 주산이 자리한 북쪽에 위치하였는데, 이 방향은 이들 시설이 죽은 자를 위한 공간, 제사의 공간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향교는 만물의 소생과 생기를 상징하는 동쪽을 지향하며 동문 밖에 입지하였다. 심지어, 서쪽 방위가 肅殺閉藏의 땅이고 동쪽 방위가 天地生物의 장소라는 관념에 근거하여 당초 서문 밖에 입지했던

향교를 동문 밖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확인된다.<sup>17)</sup> 내포지역의 읍치경관 구성에도 이러한 원리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특기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먼저 고지도상의 방위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을 살펴보면 크게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 경우, 즉 정방위로 그려진 경우와 지도의 위쪽이 서쪽인 경우로 대분된다. 덕산, 해미, 태안, 면천, 당진, 서산은 전자에 해당하고 홍주, 결성, 대흥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고지도의 위쪽은 수도인 한양 방향이거나 해당 고을의 주산 혹은 진산 방향 - 이 경우에도 한반도의 지형 조건상 대부분의 군현에서 치소 북쪽임 - 인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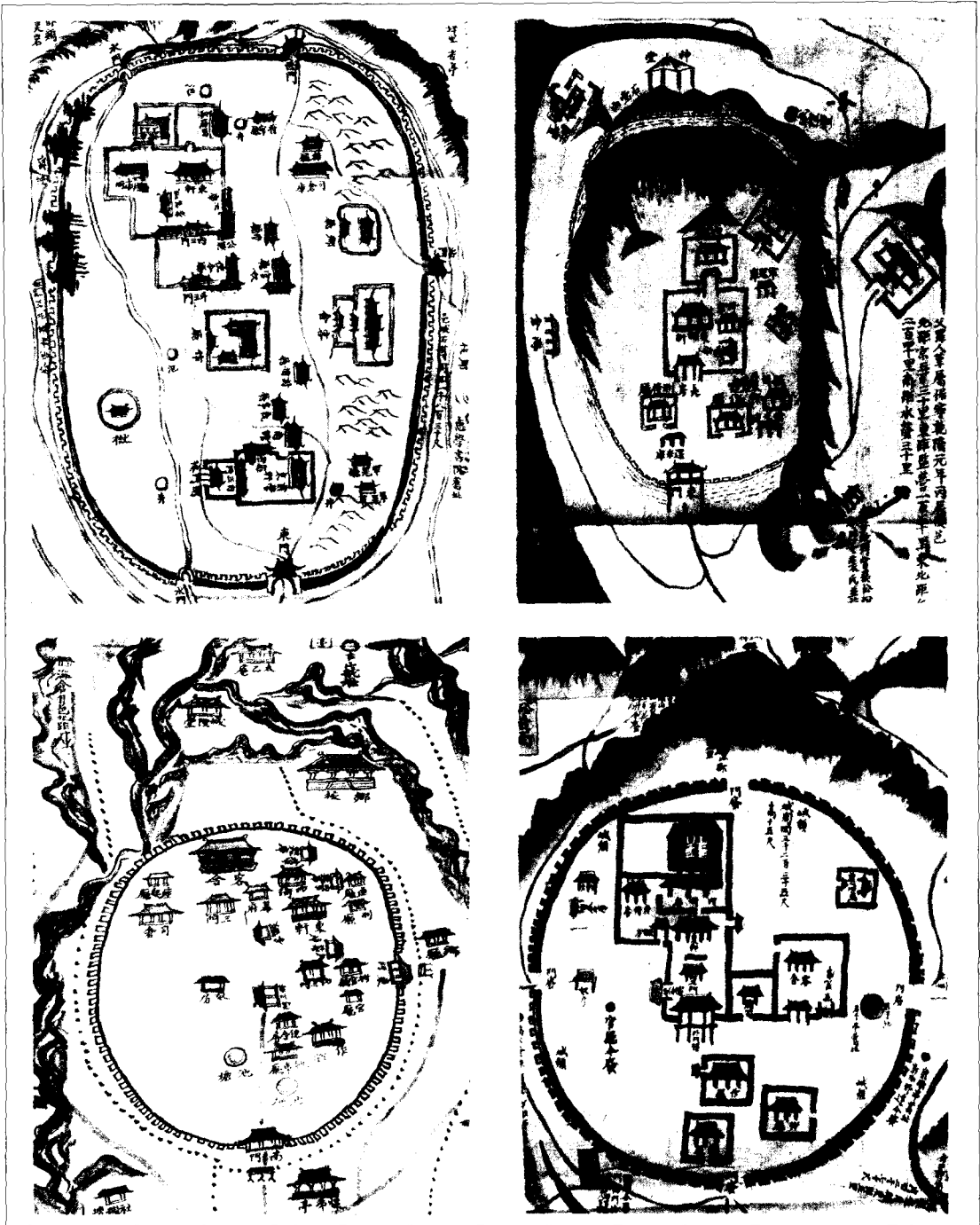


그림 1. 내포지역 읍성들의 경관 구성(1872년 고지도, 규장각 소장)

(왼쪽 위 - 홍주읍성, 왼쪽 아래 - 태안읍성, 오른쪽 위 - 결성읍성, 오른쪽 아래 - 면천읍성)

註: 고지도의 방위, 성곽의 형태, 성문의 갯수와 주 출입문, 성안의 도로망, 관아 시설의 종류와 공간 배치, 객사와 아사 경관의 상대적 규모 등이 그 지역의 자연지리적 여건이나 지역내 권력 관계, 해당 읍성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 등을 반영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경관 구성에 있어서 배후의 객사군과 전면의 아사군 경관을 배치시킨다는 국가 수준의 보편적 원칙을 지향하면서도, 결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국지적 시·공간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군현도(1872)에 나타난 읍치경관 요소와 공간 배치

구 분	읍치경관의 구성 요소	공간 배치의 특색
홍주읍성	객사, 동헌, 책실, 내아, 사달정, 장관청, 공고, 급창방, 공수, 내삼문, 외삼문, 사령청, 관노청, 장청, 도청, 사창고, 향청, 절청, 토포청, 집사청, 남관, 箭筒 동헌, 전영 내아, 전영내삼문, 전영 폐문루, 군기청, 군기고, 연못(2개소), 우물(2개소).	① 지도 위쪽이 서쪽에 해당함. 객사가 우측(북쪽) 중앙에 입지하고, 동헌과 내아는 좌측 상단(서남쪽)에 광범위한 부지를 점유하며 배치. ② 성문은 남문이 없음(성문 3개소). ③ 객사는 북문 쪽, 사창고, 도청, 장관청은 서문 쪽, 전영 동헌은 동문 쪽에 위치함. 동헌과 내아는 좌측 상단(남서쪽)에 입지하며, 감옥은 객사 반대편 끝에 위치하고, 군기청과 군기고는 객사 우측에 별도의 건물로 배치. ④ 읍성 밖의 인접 경관: 향교가 우측(북쪽)에 입지.
덕산읍성	객사, 군기고, 향청, 坐起廳, 내아, 책방, 동헌, 급창방, 내삼문, 공수, 절청, 장청, 장방, 문루, 형리청, 군기고, 누정(射亭).	① 지도를 정방위로 그리고 있고, 객사가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객사 우측(동쪽)으로 인접하여 동헌과 내아 관련 시설이 배치. ② 성문은 남쪽에 1개소(남문으로 추정). ③ 남쪽의 홍살문으로 진입하면 북쪽으로 객사가 보이고 군기고는 객사에 인접하여 입지.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남문 밖에 향교와 사직단이, 좌측 상단(서북쪽)에 신당이 위치.
해미읍성	객사, 동헌, 내아, 책방, 급창청, 내삼문, 외삼문, 화약고, 향청, 장청, 절청, 내창, 사령청, 관청, 군기고, 누정(淸唐亭), 邑市.	① 지도를 정방위로 그리고 있음. 위쪽(북쪽)에 동헌과 내아 시설이 있고, 동헌시설 좌측 하단에 객사가 위치함. ② 성문은 동서남 총 3개소. ③ 남문에서 진입하면서 좌측(서쪽)에 객사가 보이고, 중앙에서 북쪽을 향해 동헌의 외삼문, 내삼문이 전개됨. 동헌 뒤(북쪽)로 청당정이 위치. 읍시가 객사 앞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좌측 상단(서문 밖 북서쪽)에 향교, 여단, 사직단이 서로 인접해서 위치.
태안읍성	객사, 동헌, 내아, 座起廳, 사창, 삼문, 내삼문, 외삼문, 幕府, 급창방, 외군기고, 내군기고, 통청, 형청, 戶籍庫, 장관청, 관청, 노방, 사령방, 절청, 집사청, 연못(2개소).	① 지도를 정방위로 그리고 있음. 객사가 가장 북쪽 중앙에 위치하고, 객사 우측(동쪽)으로 인접하여 동헌과 내아 관련 시설이 배치(덕산읍성의 경우와 유사). ② 성문은 동문과 남문 2개소. ③ 집사청, 절청, 사령방 등이 남문쪽에 입지함.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향청이 읍성 밖(동문 밖)에 입지하는 것이 특징임. 하단(남쪽) 남문 밖에 장시가 있고 懋弟亭과 思樂亭, 사직단이 비교적 서로 가까이 위치. 위쪽(북쪽)에 향교와 城隍堂이 위치.
면천읍성	객사, 내아, 내책방, 외책방, 급창방, 동헌, 내창고, 내삼문, 사령청, 의문루, 郡司, 관청, 奴房, 절청, 향청, 장청, 군기고, 城隍 祠, 누정(君子亭), 연못(君子池).	① 읍성 시설을 정방위로 그리고 있고, 객사는 중앙 동쪽에 위치하고, 내아 시설이 북쪽에 큰 규모로 위치. ② 성문은 동서남북 모두 4개소. ③ 객사 우측에 연못(君子池)과 정자가 있음. 동헌과 내아 관련 시설이 매우 많고 자세히 그려져 있으며 넓은 부지를 점유하고 있음. 절청, 장청, 향청은 남문 쪽에 배치. 군기고는 객사 부지내에 위치. 성황사가 읍성 내측에 위치함.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위쪽(북쪽)에 여단이, 향교는 우측(동쪽), 사직단은 좌측(서쪽).
당진읍성	객사, 내아, 동헌, 책실, 급창방, 通引廳, 향청, 절청, 형청, 군고, 장청, 사령청, 내삼문, 외삼문.	① 읍성 시설을 정방위로 그리면서 객사를 정북쪽에 위치시킴. 동헌과 내아는 객사 동쪽으로 인접하여 배치(덕산읍성, 태안읍성의 경우와 유사). ② 성문은 서쪽에 1개소(서문으로 추정). ③ 객사 우측(동쪽)에 동헌과 내아가, 객사 좌측에 향청이 입지함: 절청과 형청이 중앙에, 장청과 사령청이 남단에 위치함. 군기고는 객사 부지내에 위치.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여단이 좌측 상단(서북쪽)에, 사직단이 좌측(서쪽)에 위치. 향교는 우측 하단(남동쪽)에 입지.



표 3. 계속

구 분	읍치경관의 구성 요소	공간 배치의 특색
결성읍성	객사, 내아, 동헌, 책실, 급창방, 외동헌, 현사, 질청, 장방, 형장청, 需米庫, 還米庫, 군기고.	① 지도 위쪽이 서쪽에 해당함. 하나뿐인 동문을 지도 아래쪽에 위치시키고, 내아가 지도 상단 중앙에, 객사는 내아 우측 상단에 그림. ② 성문은 동문 1개소. ③ 동헌, 책실, 급창방이 지도 중앙에 입지하고 외동헌, 질청, 형장청, 창고는 성문 쪽에 배치. 군기고는 객사에 전면에 인접.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신당이 상단(서쪽)에 있고, 성황단이 우측 상단(서서북쪽), 社壇이 좌측 상단(서서남쪽)에 위치, 향교는 우측(북쪽)에 입지.
서산읍성	객사, 동헌, 책방, 내삼문, 외삼문, 형리청, 군관청, 사령청, 내아, 외책방, 질청, 還倉, 郡司, 관청, 관노청, 화약고, 乾堰, 장관청, 누정(어풍루, 청심당), 군기고, 향청, 연못.	① 읍성 시설이 정방위로 그려져 있고, 북쪽 중앙에 동헌 시설이, 남쪽 중앙에 객사가 입지함. ② 성문은 북쪽을 제외한 동문, 서문, 남문 총 3개소. ③ 객사와 동헌 사이에 비교적 넓은 부지가 존재함. 옥은 객사에 인접해서 남서쪽 하단에 위치하고, 군기고는 객사 동쪽에 인접해서 배치함.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주산이 상단(북쪽), 향교가 우측 상단(북동).
대흥읍성	객사, 하마대, 내아, 동헌, 책실, 급창방, 내삼문, 외삼문, 장청, 장방, 관청, 군사, 질청, 군기고, 누정(思思亭), 화약고	① 지도 위쪽이 서쪽에 해당함. 내아가 지도 상단 중앙에, 객사는 내아 우측 하단에 그림(결성읍성의 경우와 유사). ② 성문은 동문 1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나며 홍살문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동헌 옆에 누정이 있으며, 객사와 내아 사이에 관청, 郡司, 질청이 있고, 군기고는 객사 부지내에 위치. ④ 읍성 밖 인접 경관: 우측(동쪽)에 향교, 사단, 여단이 함께 있고, 위쪽 상단(서쪽)에 神堂이 위치함.

많다. 그런데 내포지역의 고지도를 분석해 볼 때 읍성의 주요 출입문, 즉 主城門이 어떤 문이냐에 따라 고지도의 방위가 정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대부분의 읍성에서 남문이 가장 주된 성문이었으므로 남문이 지도의 아래 쪽에 위치함으로써 마치 고지도의 제작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읍성 안의 여러 시설들을 바라보듯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지도상의 위쪽이 북쪽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홍주읍성이나 결성읍성처럼 동문이 주요 출입문이었을 경우에는 동문이 지도의 아래 쪽에 그려진 후 이를 통과하면서 성 안의 여러 경관들을 바라보듯이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도의 위쪽이 당연히 서쪽이다. 고지도상의 방위는 읍성내 간선도로의 방향과 높은 상관성을 지녔던 것이다.

읍성 안의 경관 배치는 객사와 관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객사는 읍성에서 가장 가시성이 탁월한 곳에 입지하는데, 흔히 관아의 뒷 편이나 읍성 북쪽에 입지하여 수령이 갖는 권력의 기원 혹은 왕권을 표현하기도 한다. 군기고는 대부분의 읍성에서 객사의 부속 건물 혹은 인접 건물로 표현되

고 있어 군사권이 왕권의 보위와 직결됨을 보여준다. 내포지역 9개 읍성 중 6개의 읍성에서 객사의 위치는 읍성 안 북쪽에 있었다. 대체로 객사가 북쪽에 있고, 객사의 우측으로 내아, 내아 전면에 동헌, 동헌 앞에 각종 행정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주요 출입문인 남문을 들어서면서 처음 보이는 것이 나중 보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권력 관계를 자연화한 경관 배치라 해석할 수 있다.

주출입문, 즉 주성문으로부터의 진입 방향을 고려한 이같은 읍성 안 경관 배치와 전술했던 고지도의 방위 설정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미읍성의 객사는 동헌 남쪽에 입지하고, 면천의 경우는 동쪽 중앙, 서산읍성에서는 서쪽 중앙에 위치하는 점으로 보면, 객사가 반드시 성안 북쪽 상단 혹은 고지도 상의 상단에 위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공간 배치의 일반 원리가 모든 읍성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읍성 안의 경관을 서산읍성의 경우에서와 같이 객사군과 아사군으로 양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객사군은 국왕(권력 기원자)의 공간, 아사군은 수령(권력 실천자)의 공간인 것이다. 아사군은 다시 수령 자신을 위한 공간과 이를 뒷받침하는 향리들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각각에는 내아, 책방 등 수령을 위한 경관들과 절청, 관청 등 향리들의 그것들로 충전되고 있다. 내아나 객사 뒤편으로는 관료들의 휴식처로서 연못과 누정이 있다. 홍주읍성 수선시에는 연못을 가장 먼저 수선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읍성 내 주요 경관으로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였다.

이 외에 읍성의 입지, 성문의 위치와 갯수는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반영하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읍성 안 각종 시설의 수와 상대적 비중, 명칭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 객사 경관이 다양하게 분화된 읍성이 있었던 반면, 동헌이나 내아가 북쪽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큰 부지를 차지한 읍성도 있었다. 산록의 골짜기나 산사면에 입지한 덕산읍성, 대흥읍성의 성문은 각각 1개소였지만 평지에 위치한 면천읍성에는 동서남북 4개소의 성문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객사는 대체로 동헌에 비해 큰 규모를 취하였는데 이 또한 일정치는 않았다. 1920년대 보고에 의하면 홍주읍성의 경우 객사의 건평은 235평, 동헌은 46평이었지만, 태안읍성의 경우는 객사 건평이 18평, 동헌의 건평이 31평으로서 상대적 규모가 서로 대조되었다. 향청은 대개 읍성 안에 위치하지만 태안읍성의 경우는 동문 밖에 위치하였다. 읍성의 공간 규모가 협소하였거나 읍성 내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읍성 간에 보편성과 차별성이 양립했던 이 같은 국지적 단위의 시·공간성(temporality and spatiality)<sup>18)</sup>은 일제강점기동안 식민지적 근대성이 파급되면서 보편성, 획일성을 위주로 점차 변모하기 시작한다.

## 4.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 서산읍성 -

### 1) 전통 경관 요소의 훼손과 기능 변화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은 성곽의 철거, 읍성 안 전통 경관의 퇴폐 및 기능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 중 성곽의 철거는 가장 가시적인 사건이었고 그 만큼 상징적이었다. 한양 도성의 경우 남대문

주변 성곽은 1907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하였고, 대구읍성과 전주읍성은 각각 1906년 철거되었다(손정목, 1982). 나주읍성은 1910~20년 사이에 철거되었고 철거지는 신유입 빈민층에 의해 대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근완, 1996). 읍성 성곽의 훼손이 대체로 통감부가 설치된 1905년 이후부터 합병 조약이 조인된 1910년 전후의 시기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한다.

서산읍성의 경우 성곽의 철거 시기나 경과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13년의 지적원도상에는 성곽이 있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적어도 1910년대 전반까지 성곽 형태가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적원도에는 치성과 응성, 성문의 위치를 비롯해 성곽의 형태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명루 기능의 雉城이 7개소 있고, 특히 남문에는 甕城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선 후기의 고지도(1872년)에는 성문이 3개소 표시된 반면, 지적원도(1913년)에는 읍성의 동서남북 네 곳에서 출입구가 확인되고 성곽을 관통하며 새롭게 개설된 신작로도 성곽 남부에 세 곳이 보인다(그림 2, 그림 3).

일제강점기동안 읍성 성곽의 석재들이 신작로 착공시 기초 공사용 자재로 전용된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하면, 서산읍성의 남쪽 성곽은 이들 신작로가 개설된 1910년대 초경 헐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 안의 蓮池를 매립하여 서산경찰서 부지를 조성했다는 기록에서 연지에 인접한 서문 부근의 성곽이 매립용 자재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읽어낼 수 있다. 서산경찰서가 신축된 시점이 1922년이므로 서문 부근의 성곽은 1920년경 이미 철거되었을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일제가 성곽의 철거 그 자체에 1차적 목적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작로 개설이나 새로운 부지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반 공사용 혹은 저지대 매립용 자재가 필요했고, 이 때 이미 효용성이 소멸된 성곽의 석재는 매우 유용한 재료였을 것이다. 한편, 성곽의 石物이 일본인에게 방매되거나 城上의 枯木이 買食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sup>19)</sup>을 염두에 둔다면 성곽의 해체 시기는 일본인의 주요 유입 시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산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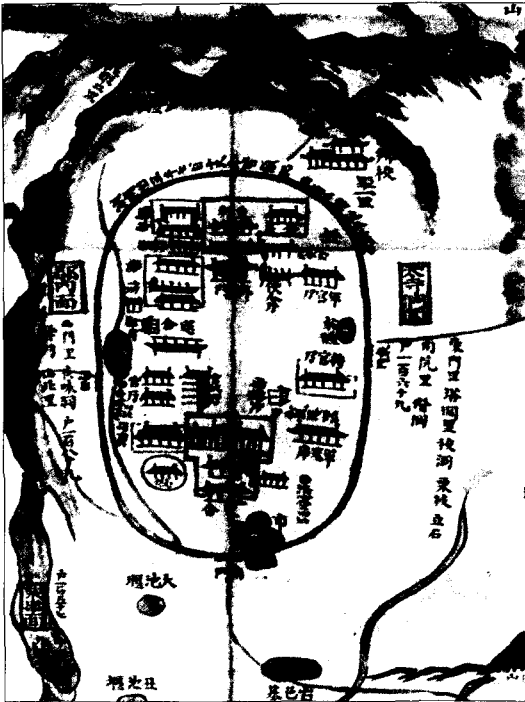


그림 2. 서산읍성 고지도(1872년)

註: 읍성의 형태는 타원형이 가미된 장방형을 취한다. 성문은 3개소로서 동문, 남문, 서문이 있다. 읍성 안에는 북쪽으로 동헌과 내아가, 남쪽에 객사가, 서문 안쪽에 연못이 확인된다. 場市가 읍성 안에서 열리고 있는데, 『湖山錄』(1619)에 의하면 당초 읍성 밖에서 열리던 것을 임진왜란(1592) 이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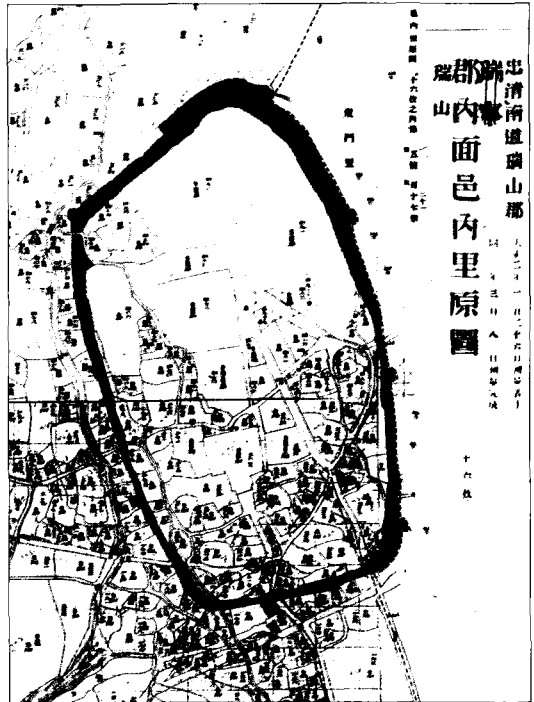


그림 3. 서산 읍내리 지적원도(1913년)

註: 이 지적원도에서 띠 형태로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서산읍성이다. 地目은 '城'으로 표기되어 있고 읍성의 동서남북 네 곳에 출입구가 확인된다. 망루 기능의 雉城이 7개소 있고, 특히 남문에는 甕城이 갖추어져 있다. 읍성 내에 많은 국유지가 보이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의 관아 시설이 있던 곳이다(읍성 안의 국유지 분포는 그림 6 참조).

성의 경우 일본인의 토지소유 확대가 1915년부터 급증했으므로 1910년대 후반에 성곽 훼손이 가장 극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7년 기록에서는 '성곽이 모두 훼손되고 가옥이 신축되어 성벽 터를 확인할 수 없고 읍성 북부에 약간의 구간만이 잔존할 뿐'<sup>30)</sup>이라 적고 있다. 적어도 1920년을 전후하여 북부 일부를 제외한 성곽이 거의 훼손되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훼손되었다'는 표현은 인위적인 철거를 뜻하는 말이며, '성벽 터에 가옥이 들어섰다'는 점은 성벽 철거와 거주지화의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 부분 관여했음을 시사한다.

지적원도에는 읍성 내에 많은 국유지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관아 시설이 있던 곳이다. 읍성 내부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전통 경관들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기능 변화를 겪었다. 전통 경관들 중 상당수는 구한말 이후 중앙 정부

의 통치 능력이 약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보수되지 않았고, 이런 탓에 의도적으로 훼손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퇴폐되어 갔다. 관료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누각이나 蓮堂이 가장 먼저 소멸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1920년대에는 이들 경관이 위치했던 유지만이 확인되고 있다. 일제에 의한 국권 탈취를 상징하듯이 군사 시설인 장대는 가장 앞서서 퇴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일본인에게 매매되어 춘원여관이 들어섰다. 퇴락한 경관들에 대해 일제는 그 정체성이나 건물 형태를 보존하거나 복원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상태가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기능 변화를 추진하였다. 기능 변화의 추진 방식은 전통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연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표 4). 가령, 중앙

표 4. 일제시기 읍치경관 요소의 퇴락 및 기능 대체 - 서산읍성 -

경관 요소	전통적 기능	퇴락 및 기능 대체	면적(坪)	소재 위치
1. 객사	· 당대 임금의 위패[關牌] 봉안. · 관찰사, 사신 등 귀빈 접대.	· 객사에 봉안 중이던 關牌는 한일병합후 충남도청에 봉납(1910년). · 객사 건물은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으로 사용(1910).	85 (건평)	읍내리 268번지
2. 衙東軒	· 군수 행정 청사	· 군수 행정 사무청(1917).	38 (건평) 2,494(부지)	읍내리 492번지
3. 급창청	· 관노비 거류	· 숙직실 및 소사실.	4 (건평)	군청사 서측 인접
4. 책실	· 군수 자제 및 衙客 거류.	· 군청사에 충당.		군청사 동북측에 연결
5. 내삼문	· 관아 내측 출입문.	· 군청사 안쪽 출입문.		
6. 사령청	· 長房과 使승들의 업무처	· 군청 문서고.	19 (건평)	군청사 남측 長房과 내삼문 사이
7. 내아	· 군수 관사.	· 군수 관사.	38 (건평)	군청사 북측
8. 외삼문	· 관아 내측 출입문.	· 군청사 바깥쪽 출입문.	11 (건평)	
9. 향청 (亞官廳)	· 향청좌수 (향장) 거류.	· 건물은 서산 보통학교에 양여(1920). · 부지는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에 보관 전환(1921).	21 (건평) 266 (부지)	읍내리 272번지
10. 질청	· 郡吏들의 사무실.	· 서산 우편소.	44 (건평)	읍내리 491번지
11. 장청	· 將校(巡校, 巡查) 사무실.	· 서산경찰서(1909). · 서산경찰서 신축(1922). · 경찰서장 관사(1923). · 서산 소학교도 이 부지에 위치.	28 (건평)	읍내리 491번지
12. 秋廳	· 형방 아전(사법서기) 사무실.	· 서산경찰서.		장청 서측
13. 관노청	· 관노비 거류.	· 건물은 경찰서 관할		미상
14. 군기고	· 무기 창고.	· 부지는 서산 금융조합에 매각	29 (건평) 290 (부지)	읍내리 263~1번지
15. 將臺	· 병사 훈련장	· 건물은 노후하여 퇴폐 · 부지는 민간인에게 매각, 春元旅館 입지(1919).	145 (부지)	추청 남단 읍내리 264번지
16. 교련청	· 관무대, 강무대	· 건물이 전하지 않음.	미상	
17. 화약고	· 화약 보관	· 건물이 전하지 않음.		춘원여관 및 國安精 - 가택
18. 관청	· 식당.	· 건물은 서산 學校費에 양여(1920)했고, 다시 서산 農會에 임대되어 여자 잠업 전습소(1920). · 부지 716평 중 572평을 서산 학교비에 양여(1920).	21 (건평) 716 (부지)	읍내리 472번지
19. 장관청		· 건물은 노후하여 퇴폐. · 부지는 和田太郎에게 매각(1918).	65 (부지)	읍내리 소재
20. 邑倉	· 감옥	· 서산 경찰서 신축시 철거. · 경찰서 구내 남측 광장.	46 (건평)	읍내리 478번지
21. 戶籍庫	· 호적 문서 보관	· 서산 경찰서 서측 경관 숙소.		읍내리 478번지
22. 정부창고	· 창고	· 서산 금융조합에 매각(1925)	15 (건평) 258 (부지)	소학교 남측 건물

표 4. 계속

경관 요소	전통적 기능	퇴락 및 기능 대체	면적(坪)	소재 위치
23. 獄舍	· 감옥	· 건물은 노후하여 퇴락. · 서산면에 양여, 면사무소(1920).	169 (부지)	읍내리 177번지
24. 蓮池	· 연못	· 성 안으로 유입하는 계류를 이용하여 담수. · 서산 경찰서 신축시 매립하여 부지로 사용 사용	111 (면적)	서산 경찰서 부지
25. 觀豐樓 三宿亭 清心堂 御風樓 愛蓮堂	· 누정 · 누정	· 군수 김대덕이 건립(건물 부전). · 모두 건물이 전하지 않음.		춘원여관 부근  군청 구내 동측 측후대 부근(삼숙정), 객사 동측(청심당), 객사 북측(어풍루), 서문 내측(애련당).

자료: 『湖山錄』(韓汝賢, 1619); 『瑞山郡誌』(李敏寧, 1927); 현지 답사.

정부와 왕권을 상징하던 객사는 지방 법원 청사로, 군수가 집무하던 동헌은 군청사로, 내아는 군수 관사로, 행정 실무처인 사령청과 질청은 각각 문서고와 우편소로, 치안을 담당하던 장청은 경찰서로 승계되었다. 이러한 기능상의 연계는 새로운 지배 주체의 등장을 상징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법이었다. 객사에 봉안 중이던 關牌는 1910년(隆熙 4) 한일병합 후 충남 도청에 봉납되었다. 관노청이나 장관청 등 건물이 퇴락한 국유지는 일본인에게 매매 양도되었다. 그 밖의 국유지는 學校費나 면사무소 등 공공 기관에 무상 양여되었다. 이로써 조선후기의 공공 시설과 국유지는 세 개의 주체, 즉 조선총독부 산하의 지방 관청, 일본인, 공공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거주민 대체와 사회적 공간의 재편

일제강점기 읍치경관의 기능 및 형태적 변화는 1차적으로 국가 수준의 정치, 경제적 질서 재편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그것의 실제에 대한 이해는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기존 주민의 거주지 이동과 새로운 유입민의 진입, 확산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일정한 공간 상에서 사람들의 거주지 변화와 집단별 거주지 분화 과정은 경관의 기능 및 형태 변화와 긴밀한 습합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까지 읍성은 다분히 통치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았듯이 조선말기까지의 읍성 내부는 정치 권력을 표

상하는 일부 상징 경관을 제외하면 다양한 행정 시설들 및 향리들의 거주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수령과 달리 조선시대의 향리직은 세습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조선말기가 되면 다수의 향리 후손들이 읍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湖山錄』(1619)의 「古今人物」條에는 향리 명단이 일부 확인되는데 吏房戶長으로 언급된 韓雨, 下吏로서 柳文, 柳廣瑞, 柳林, 柳潤塘, 尹元 등이 그들이다. 『瑞山郡誌』(1927)에서도 이들의 명단이 재차 인용되고 있으며, 「先生案」에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시의 향리 희생자로서 吏房 宋鳳勳, 禮吏 徐世麟(후에 徐丙彥으로 개명)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12년 土地査定時 읍성 안에 소유지, 특히 垸地 명목의 소유지를 갖고 있던 조선인들의 출신 성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31건의 지번이 조선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동문에서 서문에 이르는 구간에 다소 집중되고 있었다. 표 5는 읍성 안의 조선인 소유지를 정리한 것인데, 소유자 중 韓學東과 柳正奉은 『湖山錄』이나 『瑞山郡誌』 기록에 비추어 향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인물들의 경우에도 朴判業, 朴俊三, 金奉朝, 金允弘, 金召史,<sup>21)</sup> 金允祚, 李君弼 등 소위 양반들이 회피하는 한자가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통 사족 출신이 아닐 것임을 암시한다. 이 같은 추정은 이들 중 상당수가 1915년 이전에 읍성 안의 토지를 매도하고 읍성을 벗어난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된다(표 5). 1920년대 이후까지 잔류한 조선인들의 일부는 하

표 5. 토지 사정시(1912년) 읍성 안 垓地 소유 조선인 일람

소유주	지번(垓地)	소유주	지번(垓地)	소유주	지번(垓地)	소유주	지번(垓地)
朴判業	201~1	朴俊三*	227~1	金召史	248	金文京*	470~1
鄭達奉	203~1	金允弘	236~1	金明淑*	259~1	鄭寅喆*	481~1
田仁成*	204	金仁秀*	239~1	崔明西*	266~1	李君弼	485
金正玉*	206	鄭得化*	240~1	金聖謀*	270~1	金濟勛	486~1
金奉朝	207	朴才成*	242~1	金允祚	271~1	張春明	489
韓學東	208	朴昌秀*	243~1	邊貞鉉*	273~1	南一熙	490
金英淑	209	李龍西	244~1	金英俊	276~1	崔春化	497~1
金在錫*	214	金致寬*	245	柳正奉	278~1	이상 31건	

註: '\*'는 1912~1915년 사이에 읍성 안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이며, 이들 토지 중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에 의해서 매입되었다. 이 표에 제시된 인물들은 1912년 토지 사정 시 읍성 안에 소유지, 특히 垓地 명목의 소유지를 갖고 있던 조선인들이다. 당시 31건의 지번이 조선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동문에서 서문에 이르는 구간에 다소 집중되고 있었다. 표에서 韓學東과 柳正奉은 『湖山錄』이나 『瑞山郡誌』에 기록된 향리 명단과 비교할 때 향리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인물들의 경우에도 朴判業, 朴俊三, 金奉朝, 金允弘, 金召史, 金允祚, 李君弼 등 소위 양반들이 회피하는 한자가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통 사족 출신이 아닐 것임을 암시한다. 이 같은 신분 추정은 이들 중 상당수가 1915년 이전에 읍성 안의 토지를 매도하고 읍성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된다.

급 행정직이나 서어비스 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남일희는 변호사 사무소의 代理로 근무하였고 김봉조와 김영숙은 여관을 운영하였다.<sup>22)</sup>

한반도의 여타 읍성과 마찬가지로, 서산읍성의 경우에도 읍성 안팎의 거주지 분화가 뚜렷한 패턴으로 표출된 것은 일본인의 유입이 본격화된 1910년 전후의 시기이다. 읍성 내부 공간에 한정할 때, 사정(1912년) 당시 총 지적 번지수는 106개였는데 이 중 일본인 소유지가 53개, 조선인 소유지 31개, 중국인 소유지 7개, 국유지가 15개였다. 동일한 번지에 대해 1915년의 상황을 보면 일본인 소유지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 28건, 중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2건, 그리고 국유지 1건이 각각 일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그림 4와 그림 5 참조). 일본인 소유지는 1912년 53개였던 것이 1915년 84개로 증가하여 읍성 안 토지가 대거 일본인들에게 양도되었음을 보여준다. 불과 3년 사이에 일본인 소유 비율은 당초 50%에서 79%를 넘어서게 된다.

일본인들은 동문 부근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을 대체하며 소유지를 확대해 나갔다. 1912년 당시 일본인 소유지는 동문 일대에 다수 분포하였고 중국인 소유지는 남문 안쪽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후 일본인 소유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된 반면, 중

국인 소유지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1937년에 가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그림 6). 이러한 현상은 청일전쟁(1895) 이후 중국인의 한반도 거주가 점차 위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 단면일 것이다. 한편, 남문 안쪽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주로 포목업에, 조선인들은 여관업이나 목공업에 종사함으로써 민족별 직업 분화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은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읍성 안의 거의 모든 토지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연구 지역에 있어서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1912년 51건이던 것이 1915년 91건으로 급증하였고, 1937년에는 107건으로 극상에 이르렀다가 광복 직전(1945년)에는 약간 감소한 9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네 개의 시기는 서산읍성 안에서 전개된 일본인의 토지소유 확대과정을 이해하려 할 때 매우 유의미하며 그림 6의 시기 구분에 반영하였다. 읍성 밖의 경우에는 남문 밖과 동문 밖의 공간이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소유되어갔고 조선인들 대부분은 서문 밖의 일부 공간에 잔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2년 이후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일본인을 추적해 보면 赤井賢兒가 11건, 工藤陸藏이 8건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어 기타 1~2건씩의 토지를 매입한 다른 일본인들에 비해 주목된다. 1931년까지 자신의 토지를 모두 팔아버린 工藤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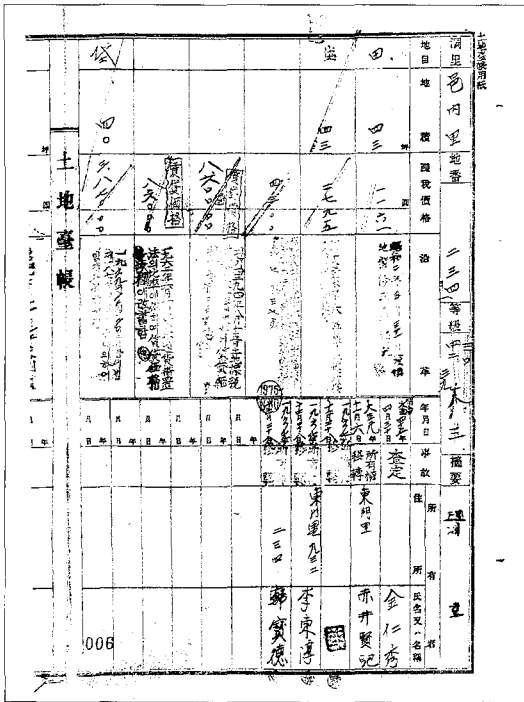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인의 조선인 소유지 매입

註: 이 지번은 서산면 읍내리 234~1번지이다. 1912(明治 45)년 4월 30일 토지 사정시 지목은 밭(田)이었고 조선인 金仁秀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지번은 같은 해 11월 6일 일본인 赤井賢兒에게 매매된 후, 1927년(昭和 2)에는 垆地로의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赤井賢兒는 이후 3년(1912~14)동안 연구 지역에서 모두 28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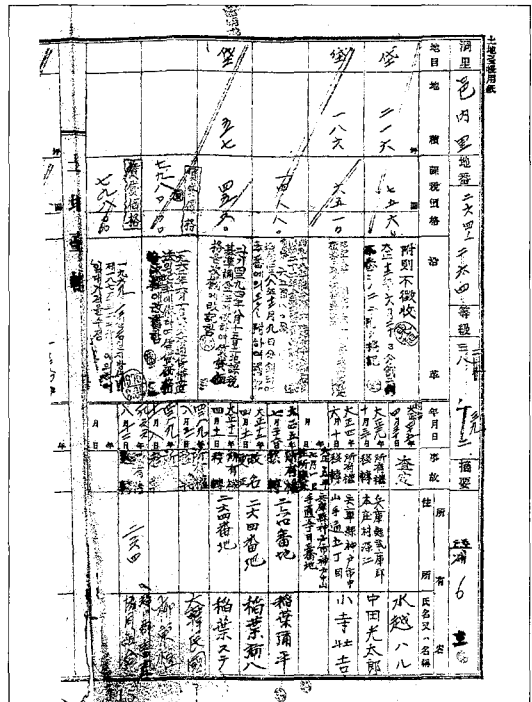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인의 국유지 매입

註: 이 지번은 서산면 읍내리 264번지로 조선후기 서산 읍성의 將臺(병사훈련소, 국유지)가 입지했던 곳이다. 이미 토지 사정(1912) 이전부터 일본인 소유지였다. 稻葉 平(1923년 稻葉隴八로 이름 변경)은 이 터 위에 春元旅館을 짓고 운영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토지대장 상의 소유주는 일본인 稻葉ステ였으며 1956년 국유지로 편입된다.

藏(269번지 거주)과 달리, 赤井賢兒는 광복 직전까지 서산읍성 일대에서 최대의 토지소유자였다. 赤井賢兒는 1911년 赤井醫院을 개업한 의사로서 서산면 동문리 932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내내 읍성 안팎의 토지를 수시로 사고 팔았는데 광복 시점에도 모두 21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업과 토지 매매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자본을 축적해 갔던 것이다. 赤井賢兒 외에도 많은 일본인들에게서 토지 매매가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舊토지대장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田地나 國有地를 점유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일본인들의 거주지화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과정은 애초에는 대부분 조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만 이후에는 주로

일본인 사이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工藤陸藏은 자신의 소유지 18건 중 14건을 조선인으로부터 매입하였지만, 조선인에게 되판 것은 4건 뿐이고 13건을 일본인에게 양도하였다.<sup>24)</sup> 따라서, 새롭게 유입하는 일본인들에게 있어 거주지 소유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비교적 배타적으로 독점되어 일본인의 소유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191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인 대지주들에 의한 토지 매입이 여러 건 확인된다. 서산군 부석면 취평리에 거주하던 조선인 대지주 韓昌東<sup>25)</sup>은 1917년에 4건, 1919년에 2건의 토지를 사들였다. 1931년에는 태안면 남문리에 거주하던 대지주 白南復<sup>26)</sup>이 1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당시 대지주들



그림 6. 일본인 및 중국인 소유지, 국유지의 소멸과 확산 (舊서산읍성 일대 읍내리 148~320, 423~437, 456~497번지)  
 註 : 일본인들의 토지소유는 이미 1912년 이전부터 읍성내 전역에서 확인된다. 그 후 남문밖과 남서부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인다; 중국인들은 1910년대까지는 남문 부근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며 밀집 거주하였으나 청일전쟁의 패배에 따른 영향으로 소유지가 급감하였다; 국유지의 일부는 1920년대 이후 금융기관 및 지방정부, 공교육기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1930년대 이후 조선인의 토지 소유지는 서문 밖을 중심으로 잔존하게 된다.  
 자료: 舊土地臺帳(일제하 서산면 일원)



이 곡물과 포의 교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전중환, 2003, 219), 읍성 안에 진입한 이들 대지주도 상업이나 기타 서서비스 업에 종사하면서 읍성안의 상권을 둘러싸고 일본인과 경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1910년대 말부터는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일부 대지주와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읍성 일대를 전통적 읍치와는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엿볼 수 있다.

### 3) 시가지 형태 및 토지이용 패턴의 변모

일본인들에 의한 거주지 점유와 소유지 확대에 따라 시가지 형태 및 토지이용 변화도 자연스럽게 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림 7은 1920년대 서산읍성 일대의 도로망과 토지이용 상황을 복원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신작로의 개설 시점은 읍성 성곽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일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1910년대 이전에 이미 네 곳의 신작로가 개설되었는데 일본인 소유지가 가장 밀집되어 있던 동문 부근과 남문 일대를 관통하였다. 새로운 도로망이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신작로의 개설은 전통 간선도로의 지선화를 야기하였다. 도로망의 주요 교차점과 서비스 업종의 분포를 지표로 삼아 공간적 중심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조선시대의 중심성은 읍성 중앙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의 중심성은 동문과 남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간선도로망은 광복 이후 서산읍의 공간구조 형성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동문, 서문, 남문을 기준으로 삼아 짜여 있던 전통적인 곡선형 도로망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격자형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기하학적으로 해체되었다.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잔류하고 있던 서문 부근에는 신작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다. 개설된 주요 신작로의 방향성을 보면 「군청사~동문 남측」, 「군청사~동문 남문 사이」, 「동문 남측~남문 서문 사이」, 남문 밖의 「동~서 방향」 등 이전의 읍성 출입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개되었다. 상징성, 관념성이 강했던 조선시대 도로망이 기능성, 실용성 위주의 신작로로 대체되며 지선화하여 갔던 것이다.

도로망의 변화가 공간구조의 변형을 유도했다면 토지이용 방식의 변화는 읍성 취락의 성격을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유입과 함께 출현한 새로운 생계 양식들은 읍성의 토지이용 패턴을 크게 바꾸었다. 일본인들은 의사, 금융업, 사법 서사, 상업, 식당, 여관, 전당포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업종들은 현금 순환이 매우 빠른 특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축적된 자본은 일본인의 광범위한 거주지 확대 및 토지소유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기존의 행정 치소였던 읍치경관은 매우 급속하게 자본주의적 도시경관으로 탈바꿈하여 갔다. 1930년대 매일신보에서는 서산 주민들이 아침 시장의 설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서산 읍내의 근대적 경관과 도시적 생활양식의 대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날로 약진하는 서산 읍내에는 각 관공서 기타 각종 단체 기관도 만홀 외에 현재 인애 비치여 읍(邑)으로 승격설 지 대두하고있는 도시로서 일용잡화 기타 식용품 정도 었지만은 그 날의 생활하는 음식점 영업을 비롯하여 일반 세민층에서는 시(市) 일만을 리용하여서는 생활상 고통도 불소할 외에 식료품도 그날의 신선한 식요품을 구입키가 곤란하여 아침 제자의 설치가 필요함을 늦기고 당국에서 읍 면의 일상생활의 생보건을 위하여 일일이라도 속히 아침 제자 설치하기를 열만은 갈망하고 있다한다.<sup>27)</sup>

특히, 그림 7에서는 행정 기능체들이 입지한 연구 지역의 북부 지역은 과거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읍성 남부의 토지이용은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관공서나 학교의 경우에 비해서 금융업과 상설 점포의 입지는 새롭게 조성된 주요 신작로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상설 점포는 場市 공간을 따라 남문 밖을 향해 확산되는 분포 패턴을 보였다.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부근에는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체들이 들어섰고, 관공서와 금융 기관 주변에 세 곳의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동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구간은 이미 1920년대부터 금융업과 상설 점포가 크게 성하였다. 이 곳을 중심으로 가장 도시적인 경관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근대적 도시경관에서는 도시적 생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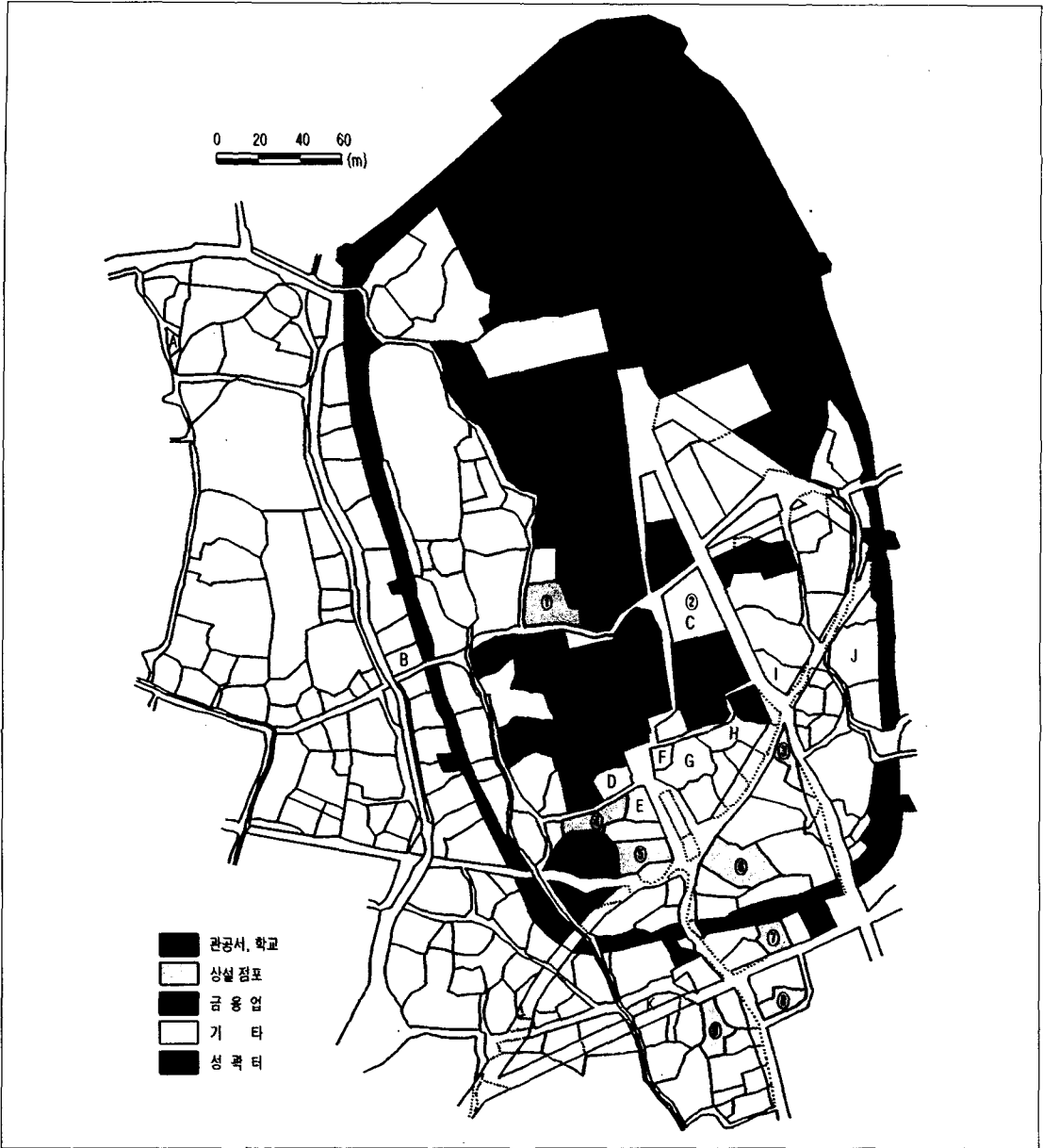


그림 7. 1920년대 서산면 일대의 도시적 기능체 분포

註: 지도에 표시된 기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괄호는 소유주).

관공서, 학교 : ①, ②, ③ 서산보통학교 무료실습지(瑞山學校費).

상설점포 : ① 식료품,잡화점(川端勝春), ② 일식당「春元支店」(稻葉彌八), ③ 식료품, 잡화, 의류점(島村仁助), ④ 신발상회(도춘기); ⑤ 포목점(李同學, 중국인), ⑥ 포목점(隋振銳, 중국인), ⑦ 일식당「多志滿屋」(田島信次郎), ⑧ 포목점(이완복), ⑨ 제과점(山下松喜)

금융업 : ⑭ 개인대금업(井元勇馬), ⑮ 개인대금업(방석민), ⑯ 서산금융조합, ⑰ 개인대금업(西上彌五郎), ⑱ 전당포(國安精一), ⑲ 개인대금업(和田太郎).

기타 : A 목공업(류윤식), B 여관(이형식), C 여관「春元旅館」, D 법무사(治田新平), E 여관(김봉주), F 사법대서(박희생), G 여관(김정숙), H 차과의원(永橋角次郎), I 운송업[朝鮮運送(주)], J 목공업(境倉藏), K 사법대서(星子弘之)

자료: 瑞山郡誌, 1927; 현지 답사.

식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강도, 연쇄 화재, 전매품 밀매 등 새로운 도시 문제까지 출현하고 있었다.<sup>26)</sup> 다시 말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성(spatiality)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 전통적 읍치경관이 근대적 도시경관으로 이행한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10~20년대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관 상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변혁이었다. 변화가 급격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기존 거주민의 주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주민의 대체를 통해 도시경관의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내포지역에는 서·남해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방어상의 이유와 넓은 하안 충적평야 및 해안 저지대의 농경제적 가치 때문에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읍성 축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내포지역의 읍성 축조는 15세기 전반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여말선초를 과도기로 하여 인근의 고읍성이나 산성으로부터 낮은 평지로 이전해 온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것은 조선 태종과 세종조의 국방력 강화에 힘입어 1429년(세종 11년) 이후 산성과 평성 중 평지의 읍성 축조가 원칙으로 자리잡은 결과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읍치는 중앙 권력을 상징하는 거점이자 다른 한편에서 촌락에 거주하던 사족들에게는 하급 관료들의 근거지로서 멸시의 공간이었다. 읍성 내부의 경관은 「客舍」群과 「衙舍」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는 읍치 공간의 권력 기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후자는 수령과 향리로 대표되는 통치 실무자들의 경관이었다. 내포지역의 읍치경관은 타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 개의 성문을 가지면서 배후의 객사군과 전면의 아사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읍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응시할 때 처음에 보이는 것이 나중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방위와 길흉의 연관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나 권력의 자연화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내포지역의 읍성 취락들은 그 지역의 자연지리

적 조건이나 해당 읍성의 주요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경관 요소를 차별적으로 갖고 있었다. 결국 전통적인 읍치 공간은 일정한 원칙 하에 조형되면서도 국지적 단위의 시·공간성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전통시기의 읍치는 근대적 도시로 진화하기에 이른다. 군사,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전통적 읍치는 자본 축적의 중심, 경제와 교육의 거점, 촌락 공간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통시기의 사회공간적 구별짓기를 상징하던 성곽의 훼손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산읍성의 경우, 성곽의 훼손은 1910~20년대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일본인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관여하였다. 이 읍성 안 전통 경관의 변형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사용되지 않은 경관은 보존될 이유가 없었고 상태가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향에서 재활용되었다. 이 때 조선왕조의 국유지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지방 정부, 일본인, 공공 기관 등 세 개의 주체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경관의 기능 및 형태 변화는 새로운 거주민, 즉 일본인 및 중국인의 유입과 긴밀한 습합 관계에 있다. 특히 일본인의 유입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생계 양식과 직종들이 읍치 공간을 3차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켰다. 읍성 안에 거주하던 기존의 조선인들은 토지 사정 후 불과 3년 사이(1912~1915년)에 소유지를 매도하고 대거 빠져나갔다. 향리 계층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열등한 사회적 신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인이었을 것이다. 조선인들의 이탈에 상응하면서 일본인들의 읍성 진입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되었다.

내포지역에서의 일본인 유입과 이에 따른 근대적 경관 변형은 개항지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배경이 된 것은 내포지역이 갖는 지리적 조건이었다. 내포지역은 일제초기부터 서산의 구도나무, 명천포, 당진의 한진나루를 통해 수도권과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에 더하여 내포지역이 갖고 있는 한광한 미개척지, 소금 생산, 해만 간척의 잠재력은 일본인과 중국인의 유입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서산읍성의 경우, 1910~20년대부터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타일본인 소유지나 심지어 田地 혹은 國有地를 점유하는 등 상당한 침투력을 가지고 급속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소유지는 1930년대에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읍성안의 토지를 매입한 일본인 중에는 경성이나 경기도, 심지어 일본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자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일본인들은 서산읍성의 동문과 남문 일대를 중심으로 경관 변화와 토지소유의 주체로 등장했고 중국인들은 남문 안쪽 공간을 근거지로 삼았다. 이에 비해 조선인들의 거주지는 서문 밖에 잔류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읍성 안팎의 공간에는 다양한 경관이 공존하게 되고 이질적 사회집단간 직업 및 거주지 분화가 초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읍성 내부를 천한 공간으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은 조선인들의 신속한 읍성 이탈을 부추긴 반면, 읍성 공간이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성은 일본인들의 광범위한 토지 점유를 가속화한 흡입 요인이었다. 일본인들은 금융, 상업, 의업 등 자본 순환이 빠른 직종에 종사함으로써 토지소유의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 축적을 이루고 있었다. 일단 일본인 소유로 된 토지는 다시 조선인에게 매수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일본인들 사이에 거래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읍성 일대는 통치 기능 외에 금융, 상업, 교육, 교통 기능의 중심지로서 도시적 생활양식 및 새로운 도시 문제들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의 도시경관의 변형은 기존 거주민(조선인)에 의해서가 아닌 새롭게 대체된 거주민(일본인)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읍치경관이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변모되는 과정은 형태와 기능상의 변혁이었음은 물론이고 매우 급격한 사회공간적 재편이었다. 읍성 취락의 중심성은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형되었다. 새로운 간선도로망 역시 일본인 거주지나 상업 지역에 비중을 두며 개설되었다. 이에 비해 서문 밖의 조선인 잔류 지역에는 상업 지역은 물론이고 한 건의 신작로도 조성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도시내의 이질적 경관 요소와 이종적 사회공간은 광복이후까지 내포지역의 도시구조와 경관 진화에 중요한 관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註

- 1) 조선시대의 읍치는 국가 권력이 지방 공간에 침투하는 거점이자 이것의 실권을 돕는 官廳, 즉 아전들의 거주 공간이었다. 중앙 정부는 읍치 내부의 다양한 경관을 통해 정권의 권위와 왕권을 상징화하려 한 반면, 지방의 주요 사족들은 읍치를 천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읍치를 벗어난 촌락 공간에 거주하였다. 그러면서도, 촌락의 사족들은 읍치에 파견된 중앙 권력에 대하여 대항과 협력 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며 생활하였다. 읍치와 촌락 간에 대등한 관계가 존속했던 조선시대의 지방 공간은 촌락이 도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된 서양의 도시권과 대비되는 구조였으며 한국의 근대적 도시 공간과도 성격을 달리했던 것이다.
- 2) 조선시대 서산읍성의 주요 관청 입지를 지적도 상에 복원한 향토학자 이은우(1987)의 글 한편이 있을 뿐이다.
- 3) A.E. Smailes는 영어권에 최초로 'townscape'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가시적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합적 기록 및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경관의 구성 요소란 건물, 필지의 형상, 건축 양식과 설계, 그리고 토지이용이었다(Smailes, A.E., 1955).
- 4) 표 1에서 해미읍성의 경우 忠淸兵馬節度使營이 1414(태종 14)년 덕산에서 해미로 이설되었으므로 이 읍성의 축성 시기는 적어도 15세기초 이전일 것이다. 그런데 『여지도서』에 제시된 해미 읍성의 규모는 그 이전이나 이후와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때로尺의 단위가 달리 규정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여지도서』의 6,630과 『대동지지』의 2,630을 비교해 보거나 규모가 유사하게 존속했던 타읍성의 경우를 참조할 때 『여지도서』의 것이 필사시의 誤記일 가능성이 크다.
- 5) 서산군 고지도(1872, 奎10416).
- 6) 『古泰安城在堀浦』(『新增東國輿地勝覽』, 「古蹟」條). 고려와 조선 시기에 운하 개착으로도 유명한 굴포 인근에는 오늘날의 팔봉초등학교 부근에 고태안성으로 추정되는 성벽 일부가 확인된다.
- 7) 『舊邑在北距五里紳衿城』(『忠淸道邑誌』, 「結城」 建治沿革條).
- 8) 『古餘美縣在今治北三十里有石築周八百八十一尺今廢』(『新增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古蹟條, 여미현은 해미현의 옛 이름이다).
- 9) 『烏山城卽古邑址在今治西六里』(『大東地志』, 「古蹟」條).
- 10) 『蕪山城石築周一千三里四十尺內有二井今廢沔州時邑于此』(『輿地圖書』, 「沔川」 古蹟條).
- 11) "신우 3년에 개성부에서 제작자 글을 올렸다. '첫째, 外城의 수리에 대하여 ... 넷째는 목, 부, 군, 현에 성을 쌓는데 대하여 ... 요사이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살 수가 없고 ... 그러니 외방의 평지에 성을 쌓는 것을 정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北譯 『高麗史』 제7책(卷 82, 志 36, 兵 2, 「城堡」條), 1991, 신서원, 서울, 514].
- 12) 여말선초에 전개된 이 같은 논쟁들에 관해서는 심정보에 의해 자세히 정리되었다(심정보, 1995,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서울, 42-48).

13) "병조 판서 최윤덕이 각 고을의 성을 축조할 조건을 들어 재하기를, 「1. 下三道 각 고을의 성 중에서 그 방어가 가장 긴요한 沿邊의 고을들은 山城을 없애고 모두 邑城을 쌓을 것이며, 그 읍성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산성을 수축하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에서 성을 쌓을 때에는 각기 그 부근에 있는 육지의 州縣으로 혹 3, 4촌 혹 5, 6읍을 적당히 아울러 정하여 점차로 축조하게 할 것이며, 1. 민호의 수효가 적고 또 성을 축조할 만하지 않은 각 고을은 隣邑의 성으로 옮겨 함께 들어가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에 쓸 만한 옛 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쓸 만한 옛 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터를 가리어 신축하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에 견실하지 못한 성이 있으면 각기 호수의 대소를 참작하여 혹은 물리고 혹은 줄여서 적당하게 개축하게 할 것이며, 1. 각 고을의 성을 일시에 다 쌓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각기 성의 대소를 보아서 적당히 연한을 정하여 견실하게 축조하도록 하소서」하니 이 일을 공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조선왕조실록 CD-Rom, 『世宗實錄』 卷 43 11年 2月 10日(丙戌條)].

14) 누정과 연못은 휴식을 위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조정 시설이기도 하였다. 특히 연못은 방화용수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전란시에는 성내의 급수 시설로 이용되었다.

15)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읍성의 형태와 관련해서 '동서 폭이 좁고 남북 길이가 길면吉하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면吉하다'고 평가되었다[村山智順(최길성 역), 1994, 조선의 풍수, 민음사, 667-668].

16) 지배 세력이 통치 이념이나 수단을 정당화하고 일반 민중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 이념을 기념비적인 경관을 이룩하여 자연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관을 '자연화된 경관'(naturalizing landscape)이라 부르기도 한다(Duncan and Duncan, 1988, 123; 윤희기, 2001, 286).

17) 서산 향교의 경우를 말한다. 당초 향교가 서문 밖 3리 거리에 있었는데, 16세기경「제읍들에서 大明一統志와 五禮儀에 근거하여 모두 읍의 동쪽에 창설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문 밖 5리로 이전하였다: "本邑鄕校在郡東五里, 初在郡西三里, 慶春先人進士公嘗考一統誌及五禮儀, 鄕校皆設邑東乃天地生物之方, 本邑鄕校猶西乃肅殺閉藏之地則, 聖人創制之本意也"(『湖山錄』「鄕校」條).

18) 본 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성(temporality)과 공간성(spatiality)이라는 개념은 Castells(1977)에 의해 정교화된 용어이다. 그는 물리적 실체 혹은 추상적 표현으로서의 시간(time)과 공간(space) 개념을 부정하고, 오직 역사적으로 규정된 시간-공간(an historically defined space-time),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작동하는 공간(a space constructed, worked, practised by social relations)만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Johnston, R.J. et al., 2000, 780). 역사철학자 Foucault(1980)는 이러한 개념의 시간, 공간 인식론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시간을 국지적이고 특수하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역사의 불연속성과 단절성을 강조하였고, 권력에 대한 분석을 공간에 관한 분석과 동일시했을 정도로 공간 개념을 사회

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주장하였다(Foucault, 1980, 149)

19) 대구읍성의 경우에도 1910년을 전후로 하여 도로개수작업 등을 이유로 城堞이 무분별하게 파괴되었으며, 이와 함께 성곽을 구성하던 주요 石物이나 읍성의 고목이 일본인에게 방매되는 일이 있었다(김일수, 2002, 186).

20) "... 現今城東西南皆毀撤建築家屋殆不知昔日城壁之跡只北部略存一片城跡..."(『瑞山郡誌』, 上, 1927, 103).

21) '召史'는 良人의 과부에 대한 호칭임.

22) 『瑞山郡誌』(1927) 卷一「訴訟代位」條, 卷三「商業及營業」條.

23) 川瀾渡는 읍내리 493번지(국유지)에 거주하였고 福村加奈衛의 거주지는 474번지(밭)였다.

24) 나머지 1건은 서산면에 양여하였다. 한편, 조선인이 매입한 4건 중 3건은 한 사람의 조선인이 사들인 것이다. 매입자는 조선인 대지주 韓昌東이었다.

25) 한창동은 1930년 177町步(약 53만 1천 평)를 소유했던 대지주였다(『大地主名簿』, 朝鮮總督府, 1930).

26) 백남복은 1930년 논 318정보, 밭 32정보, 기타 117정보 등 총 467町步(약 140만 1천 평)를 소유했던 대지주였다(『大地主名簿』, 朝鮮總督府, 1930).

27) '아름 市場設置할 것을 瑞山住民이 要望-日常生活에 不便莫甚'(매일신보 1939년 4월 5일).

28) 당시의 도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다. 『瑞山富戶絞殺眞犯 京城某處에서 逮捕, 발생 후 4년 만에』(조선중앙일보, 1934년 1월 27일); 『瑞山邑內里 火災-損害千餘圓』(매일신보, 1934년 7월 20일); 『인천과 서산 중심의 紅蔘密造團 검거』(조선중앙일보, 1936년 1월 22일).

## 文 獻

『高麗史』(北譯)(1964, 북한 사회과학원 편, 1991, 신서원, 서울).

『大東地誌』

『瑞山郡誌』(上·下)[李敏寧, 1927(昭和 2)]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朝鮮王朝實錄』 CD-Rom

『忠清道邑誌』

『湖山錄』(韓汝賢, 1619)

『大地主名簿』(朝鮮總督府, 1930).

古地圖(1872)[서산군지도(奎10416), 면천군지도(奎10419), 태안군지도(奎10422), 홍주군지도(奎10423), 결성군지도(奎10427)].

舊土地臺帳(서산시청 소장, 일제하 서산군 서산면 읍내리 일원)

新聞資料(조선중앙일보, 1934. 1. 17, 1936. 1. 22; 매

- 일신보, 1939, 4, 5)
- 地籍原圖(정부기록보존소 소장)
- 고석규, 2001, “나주의 근대도시 발달과 공간의 이중성,”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박찬승 외 공저), 경인문화사, 서울, 133-176.
- 김경수, 2000, “1910年代 榮山浦 市街地 形成過程,” 문화역사지리, 12(1), 39-55.
- 김기혁·김성희, 2002,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4), 317-336.
- 김덕현, 2001, “歷史 都市 晉州의 景觀解讀,” 문화역사지리, 13(2), 63-80.
- 김일수, 2002, “대한제국 말기 대구지역의 계몽운동과 대한협회 대구지회,” 민족문화논총(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5, 173-207.
- 내포지역 연구단, 2003, 충청남도 內浦地域 지역 엘리트의 재편과 근대화(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 결과보고서, KRF-2002-072-AM1008)
- 류제현, 1991, “한국의 도시형태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 - 호남평야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9, 5-21.
- 박찬승, 2002,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 사회와 역사, 62, 문학과지성사, 서울, 64-100.
- 손정목, 1973, “풍수지리설이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문제, 8(11), 57-103.
- \_\_\_\_\_, 1982, 한국 개항기 도시 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서울.
- \_\_\_\_\_, 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서울.
- 심정보, 1995,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서울.
- 양승우, 2000, “독일의 도시형태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I,” 국토계획, 35(3), 7-19.
- 예명해, 1998,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공간구성원리에 관한 연구(1),” 국토계획, 33(6), 33-47.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 군산항을 중심으로 -,” 지리학, 32, 74-99.
- 윤흥기, 2001,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사회, 15, 282-305.
- 이은우, 1987, “우리지방 유적지를 찾아본다.” 서산의 문화, 창간호, 서산향토연구회, 21-33.
- 이원호 외, 2002,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4), 93-104.
- 이혜은, 1984, “京城府의 民族別 居住地 分離에 관한 研究,” 지리학, 29, 20-36.
- 임덕순, 1998, “古淸州의 空間的 配置와 象徴性 -政治-文化地理學的 시각-,” 대한지리학회지, 33(4), 525-540.
- 전근완, 1996, 일제하 나주면의 도시경관변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종한, 2003, “내포지역 海灣開拓의 전개와 景觀變化의 사회적 주체,” 대한지리학회지, 38(2), 206-223.
- 최상식 외, 2003, “일제시대 홍주읍성의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 필지체계 및 소유권 변화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計劃系-, 19(8), 103-112.
- 최기엽, 1982, “경관적 표현과 공간인식,” 지리학총(경희대 지리학과), 10, 201-221.
- 최영준, 1974, “開港 前後의 仁川의 自然 및 人文景觀,” 지리학, 10, 43-59.
- 山元貴繼, 2001, “日本統治時代における韓國の農村地域の變容 - 慶尙北道慶州市江東面における地籍資料の分析を中心に -,” 人文地理, 53(2), 25-50.
- \_\_\_\_\_, 2003, “日本統治時代における朝鮮半島・木浦府周辺の空間的變容 - 地籍資料の分析を中心に -,” 人文地理, 55(4), 24-45.
- 澁谷鎮明, 1998, “都市計劃の實驗場としての植民地,” 荒山正彦 外, 空間から場所へ, 古今書院, 東京, 58-75.
- Smailes, A.E., 1955, “Some Reflections on the Geographical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ownscap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1, 99-115.
- Darby, H.C.(ed.), 2002, *The Relations of History and Geography: Studies in Engl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Exter Press, Exeter.
- Duncan, J.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Society and Space)*, 6, 117-126.

Johnston, R.J., *et al.*, 2000,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4th edition), Blackwell Publishers Ltd., Oxford.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Colin Gordon

ed.), Pantheon Books, New York.

최초투고일 04. 03. 22

최종접수일 04. 06. 18